

貿易赤字時代克服을 위한 國際競爭力強化 戰略

'92. 5. 14 롯데호텔에서 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 조찬회에
강사로 초청된 한봉수(韓鳳洙) 상공부장관의 강연내용을 발췌한 것임.

1. 最近 우리經濟의 診斷

- 우리經濟는 과거 30여년간 政府의 經濟社會發展 5개년 計劃을 주축으로 하여 對外指向的 工業化戰略을 꾸준히 추진해 오으로써 세계가 깜짝놀랄만한 飛躍的 成長을 이룩하여 왔음
 - '61년도 21억불에 불과하던 GNP가 '91년 2,800억불로 83분의 貧困國 수준에 있던 1인당 GNP도 이제 6,500불로서 中進國 수준에 到達하였고
 - '62년 國民總生産중 製造業比重도 14.4%에서 '91년 28.9%로 産業構造도 점차 高度化되어 왔으며
 - 우리經濟規模의 擴大와 아울러 '62년 0.6억불에 불과하던 輸出도 지난해에는 719억불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여 왔음
- 이처럼 짧은 資本主義 歷史속에서 우리경제가 低開發國에서 中進國段階를 지나 이제 先進工業國으로 進入하게 된 데에는
 - 물론 國民모두의 피와 땀이 바탕이 되었지만 특히, 經濟活動의 주체인 企業인 여러분들이 勞苦가 가장 컸던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한나라의 經濟가 開途國段階에 있을때와 先進國으로의 進入段階에 있을때에는 각기 다음단계로 跳躍하는데 있어서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임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國土面積이 작고

賦存資源은 부족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製品의 品質과 技術力을 바탕으로 한 輸出指向的 成長戰略외에는 다른 代案을 찾기 어렵다는데 그 어려움이 더하다고 봄

- 최근 우리經濟는 對內的으로는 民主化, 自律化와 對外的으로는 開放化 擴大 및 국가간 經濟力, 技術力 競爭의 激化 등 대내외 與件의 급속한 變化를 맞아
 - 과거와 같은 낮은 賃金을 바탕으로 한 量的成長戰略으로는 持續的으로 내실있는 成長을 해 나가는데 있어 限界를 느낄 수 밖에 없는 狀況에 처해있음
 - 金利, 換率, 油價의 3저 호황국면을 맞아 '86~88년간 年평균 12.8%의 高度成長 실현 후 成長이 鈍化되는 趨勢에 있고
 - 成長構造面에서도 '88년이후 製造業成長率이 GNP成長率을 하회함으로써 國民總生産중 製造業比重도 '88년 32.5%에서 '91년 28.9%로 낮아져 왔으며
 - 高成長-高所得-高消費의 여파와 不作用으로 生産性增加를 상회하는 賃金上昇, 勤勞時間 감축 및 製品不良率 상승 등 勤勞意慾의 저하와 서비스업의 이상비대로 인한 製造業의 人力難 심화를 겪고 있으며
 - 각국의 企業들은 世界市場을 무대로 생산, 판매 및 技術開發體制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등 産業의 國際化를 통한 競

爭力提高에 힘을 쏟는동안, 우리는 技術開發 및 自動化 設備 등 미래에 대비한 革新投資의 소홀로 製品의 가격 및 품질 양면에서의 國際競爭力이 현저히 감퇴되어 輸出은 감소하고 輸入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음

○ 이에 따라 '86~'89년간 貿易黑字時代의 基調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世界景氣의 둔화와 함께 赤字時代로 반전하여 지난해에는 71억불이라는 큰 貿易赤字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최근 우리經濟의 어려움을 과연 克服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 본인은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들-企業人과 勤勞者 그리고 政府-의 일관된 목표를 향한 合心努力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며

- 우리가 맞고있는 대내외 經濟與件變化에 맞추어 하루빨리 舊時代의 經濟體質의 옷을 바꾸어 입는 適應의 智慧와 各계각층의 努力하는 意志가 있을 경우 머지않아 安定的 成長基調의 정착과 함께 製造業의 굳건한 競爭力에 바탕을 둔 貿易黑字時代로 복귀할 수 있다고 확신함

○ 다시말해, 開發初期段階에서 채택했던 量的 成長戰略에서 産業의 成熟段階로의 진입과 함께 質的, 安定成長을 목표로 하여 - 巨視經濟次元에서는 物價 및 賃金 등 經濟安定基調의 정착

- 産業측면에서는 成長잠재력의 확충과 製造業의 競爭力 強化

- 企業측면에서는 産業組織의 효율화와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 우리 經濟가 처한 과도기적 어려움을 이기고 先進工業國을 향한 제2의 跳躍을 이뤄내기 위한 시대적 요청인 것임

2. 貿易赤字時代 克服을 위한 國際競爭力 強化方案

가. 經濟安定基調의 定着

○ 政府는 지난해 이후 成長速度를 낮추어 內需鎮靜을 통한 輸入需要와 物價에 대한 압력을 줄이면서, 製造業競爭力 強化를 통한 輸出増大를 이루기 위한 經濟安定化施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과거 수년간 우리經濟의 適正成長率을 초과하는 高度成長으로 인해 物價不安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輸入需要를 유발케 되었으며

'89~'91년

* 潜在成長率 : 6.8~7.9%

* 實際成長率 : 6.8~9.3%

- 이러한 物價不安현상은 企業의 장기적이고 安정적인 投資와 生産活動을 저해할 뿐 아니라 資金需要의 증가와 金利의 상승을 초래하여 우리제품의 國際競爭力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음

○ 政府로서는 향후 2~3년내에 經濟安定基調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아래

- 緊縮豫算의 편성등 財政面에서의 절약과 總通貨증가율을 18.5% 범위내로 유지하는 등 總需要를 管理하고 - 총액 5% 범위내에서 賃金을 安定시키며

- 建設投資 및 民間消費의 진정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년 1/4분기중 經濟成長率 7.6% 수준으로 안정되어가고 있고 消費者物價도 작년 동기간의 5.4%에서 금년 1~4월중에는 3.2% 상승에 머무르고 있으며 輸入需要도 줄어들어 1~4월중 輸出入差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개선된 43억불의 赤字('91. 1~4 54억불 적자)를 보이는 등 점차 經濟安定化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여기에서 企業이 분담해야 할 몫으로는 무엇보다도 生産性增加를 상회하는 賃金上昇의 자제와 工產品價格의 安정인

바

- 앞으로 7%대의 成長率을 지속해 나간다고 할 때 經濟活動人口가 2%정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賃金上昇率은 경제총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5%내외에서 안정되어야 할 것임
- 工產品價格의 安定을 위해서는 政府에서도 流通構造改善등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으나 生産性向上 및 에너지消費節約 등 原價節減을 통해 人件費 및 原資材 價格 상승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나. 成長潛在力의 擴充과 製造業競爭力 強化

- 國家의 經濟力은 製造業의 競爭力에 의한 뒷받침없이 지속적일 유지, 발전이 불가능함
 - 과거 世界經濟의 중심이 18C 英國에서 19C末 美國으로 그리고 최근 20C 후반에 들어와서는 日本으로 이동해 왔던 역사적 사실이 국가경제에서 製造業의 重要性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음
- 우리經濟의 장기적인 成長潛在力을 배양하고 輸出 및 製造業의 競爭力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 經濟의 安定基調下에서 한정된 人的·物的資源을 製造業의 技術, 인력, 설비 등에 중점 투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政府에서는 지난해부터 産業別 核心 및 共通隘路技術의 개발, 技術 및 機能人力 확보, 設備投資資金의 확대, 工場用地 및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등 제조업生産要素의 원활한 供給에 초점을 둔 “製造業競爭力 強化施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製造業競爭力 強化의 重要性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고 産業現場에서도 技

術開發, 勞動生産性, 輸出增加 등 여러가지면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국제적으로 이제는 각국의 技術保護主義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國家全體의 입장에서 수립된 綜合的 技術開發戰略아래서 기업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技術개발노력을 배가함으로써 先進技術段階로의 Catchup 과정을 단축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研究開發費 지출수준은 총 3조 2,105억원('90)정도로서 先進國의 일개기업수준에 불과하여 이대로 간다면 先進國과의 技術力隔差는 점차 확대될 수 밖에는 없는 것임

	한국('90)	GM('89)	IBM('88)
* 연구개발비	45억불	52억불	59억불
투자규모			

- 따라서 모든 分野에서 전면적으로 挑戰하기 보다는 한정된 資源을 産業競爭力強化로 직결시킬 수 있는 분야에 重生投資하되 國際間 工程分業體制를 활용하여 도입이 불가피한 기술이나 중간재는 당분간 外國으로부터 도입하고 이를 改良, 補完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政府는 지난해부터 産業界의 公통애로,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919개의 生産技術開發과제를 선정 '95년까지 年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産業界의 未來 技術需要를 예측 제시함으로써 民間의 技術開發努力을 촉진시키며 이와같은 技術豫測은 향후 5년간 정도의 技術동향을 매년 수정제시하는 Rolling Plan 형태로 추진될 것임
- 요즘 세계적 기업들은 國境의 概念을 떠나 勞動, 技術, 天然資源 및 經營環境 등 요소별 비교우위가 있는 最適地를 찾아 공장을 세우고 연구소를 설립하며 합작투자를 하는 등 工程別 分業의 利

點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로서도 각국과의 産業情報의 활발한 교환, 상호간 保有技術의 통합 및 생산전문화를 위한 戰略同盟關係(Strategic Alliance)의 형성, 해외투자의 확대등을 통한 産業의 國際化를 진전시킴으로써 國際産業, 技術協力社會의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

○ 人的資源의 원활한 공급 및 효율적 활용과 관련하여

- 우리의 教育에 있어서도 “市場經濟의 原理”를 좀더 과감히 도입하여, 배울 능력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教育의 機會가 주어질 수 있도록 教育서비스의 供給能力과 質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教育財政의 대폭적인 추가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民間財源이 技術教育에 투입되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낼 수 있도록 재원이 있고 기술교육을 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施設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자유롭게 技術教育事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 이러한 過程을 통하여 年間 40만명에 이르는 未進學靑少年의 産業계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지며 教育기관간의 치열한 競爭을 통하여 기술교육서비스의 質과 多樣性이 제고될 것으로 봄

- 政府는 이의 일환으로 産業계가 기술교육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 생산현장을 직접 연계시키는 “技術大學”의 설립을 위하여 教育法을 개정할 계획이며 “産學協同促進에 관한 法律” 제정을 통하여 기술교육기관과 현장의 협력을 강화하고 技術教育機關에 대한 支援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

- 生産職 人力의 공급확대를 위하여는 工高의 확충과 人文系 高校生의 技術教育을 강화해 나갈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인력의 공급확대는 企業에 있어서 人力을 아끼고 존중하고 활용하려는 제도와 분위기의 조성없이 産業競爭力의 強化에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함. 인력에 대한 投資가 企業의 競爭力의 결정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모두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한편, 輸出 및 製造業으로의 資金흐름 개선을 위해서는

- 金融기관的 製造業貸出指導比率의 상향조정에 더하여

* 은행의 제조업대출지도비율 :

'91) 44.8%

'92) 54.1%

- '92. 2월말 현재 32조 1,755억원에 달하는 預金銀行의 政策金融資金을 輸出 및 製造業쪽으로 보다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 예금은행 총정액자금중 輸出 및 製造業比重 : '80) 64.7%→

'92. 2) 50.1%

- 政策金融의 支援方法을 技術 및 人力開發에 집중지원토록 해나가겠음

다. 企業競爭力의 強化

1) 産業政策의 基本方向

○ 産業政策이란 한정된 資源의 産業간 配分에 영향을 미치고 企業의 經濟活動條件을 적절히 조성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産業의 競爭力提高와 經濟의 效率극대화를 도모키 위한 것인 바

- 각기 나라마다 政治體制, 經濟發展度, 資源賦存度, 技術自立度, 國民意識水準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 국민의 福祉增進이라는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

- 각국간 産業政策의 특징을 보면
 - 美國은 합리적 個人主義를 바탕으로 한 “自由市場 經濟” 원리하에서 民間 企業의 自律的 經濟活動을 최대한 존중하되 政府의 介入은 가급적 억제하는 政策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 日本은 국가전체의 産業發展에 최우선목표를 두고 政府와 企業間의 일치적 協助關係를 통해 이를 달성하는 “協助主義的 市場經濟”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 西獨은 自由市場經濟體制 속에서도 政府가 고도로 조직화된 民間團體와 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시장결합을 보완하는 “社會的 市場經濟”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들어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東西冷戰體制의 와해와 國防豫算의 감축에 따라 이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아 技術開發의 촉진등 적극적 産業政策을 펴야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은
 - 經濟自律化, 開放化基調의 지속추진을 통한 市場經濟原理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키 위해
 - 市場進入 및 퇴출장벽 등 競爭을 제약하는 각종 經濟行政規制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한편 外部經濟效果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 유인을 提供하고
 - 企業의 私的, 短期的 利潤追求活動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市場의 缺陷을 보완하는 범위내에서 政府介入을 최소화 해 나가는 것임
- 최근 政府의 企業政策과 관련하여 規制強化를 위주로 한 새로운 政策導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 政府가 추진하는 産業政策은 어디까지나 우리산업의 競爭力을 강화시켜 國際收支의 균형을 회복하고 지속적이고 安定的인 經濟成長을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하에서
 - 産業構造의 高度化政策과 아울러 産業組織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企業經營의 합리화를 도모키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지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인위적으로 制約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함
- 앞으로 經濟의 民間自律化基盤을 강화하고 政府의 政策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政府와 業界間 Consensus Building 과정을 통해 각종 産業政策을 상호협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 이를 위해 工業發展審議會 및 22개 업종별, 기능별 産業發展 民間協議會 등 민, 관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産業關聯情報의 상호교환과 民間業界의 의견수렴기능을 提高시킴으로써 民間業界의 사전적, 자율적 투자조정을 유도하고 經濟活動上 隘路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특히 産業政策 추진 주체중의 하나인 金融機關이 이와같은 合意形成過程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용자결정에 반영할 경우 金融機關의 자율성, 독자성은 유지하면서 融資決定의 합리성 및 資源配分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2) 産業組織의 效率化 方案
 - 최근 産業政策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産業組織을 효율화하는 것임
 - 이는 資金 및 人力供給의 擴大, 技術開發支援 등 製造業의 競爭力 強化政策이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려면 실제 산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企業의 經營이나 組織이 가장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임.
 - 이와같은 産業組織政策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課題는 大企業集團의 業種專門化, 企業의 公開, 所有와 經營의 分離, 經濟力集中의 緩和등이라

하겠으며 이들과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동일한 과제는 아님

○ 그러나 이들과제의 推進에 있어서는 手段과 時間의 緩急이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가 산업조직의 효율화에 관심을 갖는 目的은 단기, 중기적으로는 産業의 效率를 높이고 그리하여 효율성을 가진 企業이 創出하는 富가 다수의 福祉向上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음

- 따라서 우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大企業集團의 業種專門化와 適格企業의 公開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經濟力集中緩和 問題는 稅制의 改善과 稅政의 엄격한 집행을 통하여 時間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물론 業種專門化와 기업의 공개추진은 대부분의 경우 소유의 분산과 經濟力集中緩和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함. 그러나 業種專門化와 기업의 공개추진이 기업이 專門性을 높이고 費用으로 資金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좀더 강한 반면 所有와 經營의 分離와 經濟力集中緩和問題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효과도 있겠으나 오히려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社會的 摩擦을 解消하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임

- 물론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거나 개인에 의한 다수기업의 실질적 지배에 의한 經濟力集中이 완화된다면 계열사간의 獨立經營이 가능해지고 이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業種專門化와 株式의 分散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임

○ 따라서 우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業種專門化와 低利資金의 조달이 가능하도록 適格企業의 公開를 적극 추진

해 나가면서

- 租稅政策의 효율적 개선과 집행을 통하여 개인에 의한 所有集中의 분산과 經濟力集中緩和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 함

大企業集團의 業種專門化 促進

○ 國家資源의 한정이라는 제약하에서 우리기업이 特定比較優位分野에 기술개발, 인력개발, 생산성향상을 위한 投資의 深化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 기업과의 競爭與件을 조성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지난해 부터 시행중에 있는 30대 系列 企業群을 대상으로 한 主力業體 중심의 業種專門化 제도를 개선하여

- 技術開發 및 生産工程上 연관성을 감안하여 相關業種등을 하나의 業種으로 包括 分類토록 하는 大分類체제를 도입하고

* 현행 104개(제조업 81개) 業種분류 → 21개(제조업 12개) 業種분류

- 大分類體制의 業種分類에 따라 각계열기업군이 일정숫자의 主力業種을 자유로이 결정토록 하며

- 선정된 主力業種에 대하여는 與信限度管理上 완화를 포함한 金融支援 擴大 및 稅制面에서의 지원방안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關係部處와 協議中에 있음

企業 財務構造의 改善誘導

○ 우리나라 企業들은 그간 外部金融에 依存한 量的成長 및 多角化에 치중한 결과 주요 경쟁국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매우 脆弱하여

- 과도한 金融費用 발생

- 資金의 상시적 부족상태

- 일시적 景氣不振에 대한 극복능력의 부족 등 기업 체질이 허약함

- 이러한 관점에서 政府로서는 기업의 内部資金調達比重의 提高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키 위하여
 - 企業公開의 촉진과 株式市場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의 마련과 함께
 - 自己資本보다 他人資本 사용시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세제를 개선하여 增資所得控除制度上 損費처리되는 증자금액의 비율을 높이고 공제기간도 연장해 나가야 할 것임

經濟力集中의 緩和問題

- 공평한 소득분배 등 經濟正義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의 완화문제는
 - 産業競爭力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세계주요기업들과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히려 專門化된 國際規模의 대기업의 출현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 대기업집단에 대한 지나친 規制로 인해 기업의 成長을 沮害하는 일이 없도록 현행 公正去來法上 총자산규모 4,000억원 이상으로 되어있는 “大規模 企業集團”의 指定基準을 완화시켜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大規模 企業集團의 지정숫자 : '87.4) 32개 기업집단 509개 계열사 → '92.4) 78개 기업집단 1,056개 계열사

“所有와 經營分離” 問題

- “所有와 經營分離”는
 - 專門經營人의 등장을 가능토록하여 기업의 창의력 촉진과 효율적 경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소유와 경영의 分離自體가 目的이 될 수 없으며 기업의 所有主가 우수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人爲的인 전문경영인제도의 실익은 매우 적음

- 다만, 所有主의 우월적 지위로 말미암아 전문경영인의 등장과 능력발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와 경영분리는 産業競爭力을 높이는데 기여케 될 것인 바, 이는 기업의 所有權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상속·증여세의 稅政強化와 企業公開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가능한 것이라고 봄

中小企業의 基盤 強化

- 이제까지 社會的 弱者이기 때문에 保護하고 育成되어왔던 中小企業을 經濟의 活力을 회복하는 主體로서의 役割을 強化하고 體質自體를 튼튼히 하기 위해
 - 中小企業의 技術開發 및 生産自動化, 事業轉換의 促進등 構造調整을 위한 政策的 支援을 지속적으로 推進하는 한편
 - 創業促進 및 中小企業間 競爭과 國際協力을 誘導키위한 制度的 基盤을 조성해 나가겠음
- 貿易收支赤字의 구조적 요인으로 되어 있는 部品産業의 발전과 大企業과 中小企業間 협력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그간 組立大企業의 部品中小企業에 대한 10% 자본참여의 허용등을 통해 양자간 기술, 인력, 자금상의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중에 있음
 - 앞으로도 이러한 施策을 더욱 補強하여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의 大型化와 함께 소기업중심의 2차 하도급업체를 육성함으로써 專門生産 및 技術開發 단계상 重層的 系列化를 유도해 나갈 방침임

勞使關係의 發展

- 우리나라는 지난 몇년동안 勞使紛糾 및 과도한 賃金 上昇으로 인한 경쟁력의 상실을 깊이 체험해 왔으며,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勞使間 상호신뢰

에 바탕을 둔 협력관계와 共同體意識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

-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勤勞者들의 기업경영에의 參與度를 제고시켜줌으로써 '企業은 일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할 수 있도록
- 기업경영내용의 公開
- 企業利益의 適正配分제도입, 즉 1/3은 社內留保, 1/3은 株主配當支給, 1/3은 근益자에 대한 成果配分 등 열심히 일한데 대한 무형, 유형의 댓가를 지불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맺음말

-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産業의 國際競

爭力提高를 통한 貿易赤字時代의 克服과 제2의 經濟跳躍을 이루기 위해서는

- 사회전반적으로 各계各층이 非效率性和 硬直性을 과감히 탈피하고 革新指向的으로 體質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특히, 국가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경제의 핵심주체인 企業人의 役割과 使命은 더욱 중요하고도 무거운 것임
- 정부로서는 기업활동에 障礙가 되고 發展을 阻害하는 각종규제요인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成長與件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인 바 이를 위한 各계로부터의 政策建議를 언제라도 歡迎하는 입장임